



## 전남학생기본소득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장

여행을 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구분도 별로 없이 사는 것 같다. 김대중 교육감과 인터뷰를 하려면 전남 교육청에 가야 한다. 전남 교육청은 무안에 있다. 목포서 가깝다고 한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실제로 그런지 마음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를 내서 다녀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그래, 좀 이른 봄 나들이를 하는 거다.” 온난화 때문인지 봄은 벌써부터 와있는 느낌이다.

오랜만에 정장에 버버리까지 입고 목포역에 도착한다. 무안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목포관광을 하기에 너무 촉박하다.

목포역에서 유달산 쪽으로 무조건 걸었다. 새롭게 단장한 목포 근대박물관 주변(손혜원 땅투기 의혹 받던 곳이 이쯤 아닐까 싶다. 근데 전혀 투기를 할 만한 곳으로 보이질 않는다. 실제 투기부분은 무죄였던 것 같다.), 김대중 선생(난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대중 선생’이 훨씬 익숙하다.)이 청소년 시절 공부하던 방, 수군영水軍營이 있던 곳에 조성했다는 목포진 역사공원 등을 구두를 신고 걸었다. “아, 발아파.”

거리 조성은 잘해 놨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예외가 나타난다. <김00 선지 해장국>이다. (궁금하면 칠백 원, 왜 오백 원이 아니냐고? ‘이 사람이 물가 오를 거 모르나?’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는, 진짜 맛집이란다. 안타깝게도 난 이미 역 앞에서 김치찌개를 먹은 다음이었다.

목포에서 무안으로 넘어간다. 세상에, 양파로 유명한 무안에 웬 아파트가 이렇게...; 전남도청, 경찰청, 전국에서 가장 클 것 같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목적지 전남교육청이 대단위 행정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서 맞은 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으로 보였다.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다. 김대중교육감과 한 시간 짝 채운 인터뷰를 했다. 나이는 2살 많으시고, 전남에서 대학생활을 하셨는데 수도권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한 나와 거리감이 전혀 없다. 그간 386세대니 586세대니 하는 게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유영역이 예상보다 넓고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내내 부연설명 필요없이 “찍하면 입맛”이라고 다 알아들었다. 내용 자체는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제 교육감님이나 나나 “실연失戀도 달콤하게” 회상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언제 한 번 더 뵙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원조경쟁이 치열한, 코롬방제과점과 씨엘비(코롬방의 이니셜)베이커리에서 유명하다는 바게트를 사가지고 왔다. 물론 두 군데 모두에서 산 건 아니다. 둘 중 어디서 샀을까? 궁금하면, 칠백 원!

저도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인데, 철학을 전공하신 특별한 지원동기가 있으셨는 지가 궁금합니다.

-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냥 막연하게 제 적성에 가장 맞는 건 철학인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곡성 태생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시고 한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곡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는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폐병에 걸리셔서 남원 도립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퇴원을 해서 나오셨을 때는 가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집에서 서당을 여셨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다니기 전인 어린 나이때부터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다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시골에 사는 것 치고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곡성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광주 첫 고교 평준화세대,

소위 말하는 추천 1세대입니다.

뽕뽕이?

- 예, 뽕뽕이. 그러니까 그때 광주일고, 광고를 안 가고 저는 동신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재단이 동강학원이었습니다. 동강학원에는 남고 뿐만 아니라 여중, 여고, 남중까지 있었습니다. 동강학원에는 소속 남녀 중고를 포괄하는, 춘계, 추계 독후감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신학원에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이 여중 선생님이었고 남고에는 글 쓰시는 김수중 선생님(훗날 교수가 되시는데), 아동문학가로 유명한 전원범 선생님 등이 계셨습니다. 이 독후감대회에서 1학년인 제가 『데미안』으로 1등을 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정음사판 세계문학전집이 유행이었는데, 그걸 누가 많이 읽었는가를 놓고 친구들과 겨루기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고 은연 중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제 희망전공이 철학과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학과는 전남에서는 전남대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 못 가면 전남대 가야 되니까 전남대 철학과를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읽기를 좋아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철학가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고등학교 때 철학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갔는데, 뭐 좀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셨는지요?

- 저도 주변에는 그때 철학과 다닌다고 말 못 했어요. 시골에 가면 아주 그냥...

왜 점 보는 과를 갔냐고 그러시지들 않던가요?

- 버린 사람 취급을 받아서 어머니가 제가 철학과 다닌다는 말씀을 아마 3학년 때까지는 하지 못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군복무를 군병원에서 했는데, 병원이다 보니 군무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철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왔더니깐 점 봐 달라고 해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

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 그렇죠.

어떻게 교사를 하셨나요? 윤리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철학과에는 교직과정이 없었는데, 전남대는 있었나 봅니까?

- 네.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더러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신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 교사가 되라고 하신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서전에도 썼습니다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순창 분이신 데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좌익 계열로요. 외할아버지 함자가 홍자 정자 표자신데, 300두락을 갖고 있는. 굉장한 지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팔아서 만주에서 금광을 한다고 가셨는데, 실은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옥과의 과학대학 이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이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데,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 개량주의 비판 있었으나 교육운동 필요성 느껴 교사의 길로

옥과가 연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곡성이요, 그 뒤가 순창이고.

거기 과학?

- 과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 이 학교가 그래서 해방 이후에 폐교를 겪기도 하는 겁니다. 청년단들을 피해서, 피신해서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84년 전두환 정권 때가 돼서야 빨간 줄이 없어졌거든요. (전두환 정권은 83년부터 유화책을 쓰기 시작한다: 첨부: 인터뷰 정리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거지요. 하여튼 빨간 줄이 있으면 정치를 한다거나 공무원이나 다른 취직을 하는 건 안 되는데 선생은 됐던 모양이더라고

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라고 계속 채근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학과 다니면서 내가 혹시 직업을 갖게 되면 철학교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10.26이 나고, 2학년 때 5.18이 났어요. 제가 그걸 겪었습니다, 나중에 도망갔습니다만. 그걸 겪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야학이랄지 노동운동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지, 교사로 가는 것은 개량주의라고 비판받던 시대예요.

저도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저는 그때 그러면서도 갈 곳은 교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가서 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몇몇 친구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명여고 윤리 교사로 교직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뜻도 작용을 했고 여러 과정을 겪긴 했지만 제 생각도 일치하게 되어 교사가 됐죠.

전교조 활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이미 대학 생활에서 보이는데요.

- 그렇죠. 그때부터 의견을 같이한 친구들은 다 교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남에서 그 친구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사들이 모여서 스터디 하면 다 용공으로 몰려서 잡아가던 시절입니다. 아람회, 오송회 사건이 나면서부터 교사들 모여서 공부할 때도 숨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YMCA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YMCA 교사회로 시작해서 교사협의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전교조의 시작이 된 거죠. 대학부터 쪽 이렇게 연결돼서 전교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대학 재학 중 10·26, 5·18 연달아 겪으면서 학생운동, 교육운동의 삶 살게 돼

전교조 활동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사들이 결성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육 이념의 문제, 교사의 역할 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 때만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복, 수학여행, 앨범 등 교사들이 포함된 부정, 비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촌지 같은 것이 만연했습니다. 5.18을 겪은 후에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학교 속에서도, 교육 속에서 민주화해야 된다는 과제가 생겨납니다. 처음 전교조를 만들고, 만들어가는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시국선언하고, 교육민주화 선언하고 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투쟁이었죠. 여러 구습들이 온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교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전교조가 만들어졌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복직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복직을 안 하셨잖아요?

## 처음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이후엔 소신에 따라 복직 안해

- 그랬죠. 전국에서 1,500명이 넘게 해직이 됐는데요, 전남은 178명인가 됐어요. 저는 목포에서 해직이 됐는데 목포에서만 42명이 해직이 됐으니까. 한수, 즉 한강 이남의 단 일지회에서는 가장 많이 해직된 데가 목포입니다. 제가 대표자 같은 역할을 목포에서 했는데, 계속 합법화 투쟁을 하고 해직교사 복직 투쟁을 했죠. 그리고 5년 뒤에 YS 정권이 들어섰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YS가 되면서 무산이 됩니다. YS가 그 때 전교조는 인정 못 하지만 생계문제가 있으니 복직은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를 하지 않겠다는 탈퇴각서, 전향서를 쓰도록 합니다. 5년 동안에 우리들은 가정이 피해를지고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탈퇴각서나 전



향서를 써주고 복직을 하되 모두가 다 들어가면 전교조 자체가 사라지니까 집 지킬 사람은 남겨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각 시도에서 조합원 수가 많은 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광주 같은 데는 1명, 전남은 수가 많으니까 2명, 서울은 2명,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부장하고 저 하고 안 쓰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전교조 지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나게 되니까 복직한 선생님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분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밖에 남은 해직자의 역할보다는 학교 안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탈퇴서를 쓰면 복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삼스럽게 탈퇴서를 쓴다는 게 흔쾌한 일은 아니었고 끝까지 안 쓰고 합법화될 때까지는 버티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교조 합법화 투쟁이 중요하니까 차라리 지방의회나 이런 데로 진출해서 합법화 투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 운동권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한 70여 명 당선이 됐는데, 저는 목포시의회

무소속, 당시 민주 진영 후보 비슷하게 나가서 당선이 돼서 시의원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저의 정치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 그렇지요. 95년에 시의원이 됐으니까.

3선 하셨습니까?

- 3선 했어요.

그러면 시의원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살기 힘들었죠.

- 그러니까 시의원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교조 활동도 했지만 YMCA 사무총장도 하고, Y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을 많이 만드는 데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시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전교조 합법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 DJ

에 대한 비판적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 DJ가 되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재선 때도 무투표 당선이 되고 3선 때도 선거 없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3선 전반기 때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40세인가 41세인가 젊은 나이에 제가 시 의장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의장을 하면서 활동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활동도 하고, 정당 활동도 그때 입당을 해서 했고.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탄핵 국면이 전개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때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어요. 이곳은 DJ 본산인데 동계동계가 민주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으로는 나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왔던 여러 사람들이 ‘아니, 김대중이 안 나오면 누가 나올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려면 의장을 그만둬야 돼요. 떨어질 건 뻔한데, 나와 봤자. 그래도 할 수 없이 의장 그만두고 출마를 했죠.

### 교육문제 해결 위한 연장선에서 정치에 뛰어들어

열린우리당으로?

- 네. 그런데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급격하게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저도 당선될 뻔했죠.

오히려 열린우리당 돌풍이 불어서.

-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당선될 뻔했다니까요. 근데 막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동교동계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추미애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꼬마 민주당, 하여튼 민주당이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목포에서 총력을 다 했습니다. 목포가 상징적인 곳이라 총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여파로 이쪽 서부 벨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김효석, 이낙연, 한화갑, 목포는 김홍일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대신 나온 이상열, 여기는 꼬마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기억합니다.

- 저는 한 10% 정도 차이로 떨어져버렸죠. 그때가 2004년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긴 하네요. 교육감님 교육계에 오래 계셨고, 당연히 우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현재 우리 교육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력이 가장 빠르게 하향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열이요?

- 아니요. 교육력, 학생들의 교육력이에요.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학력. 그런데 대학 입시에 필요한 학력만이 아니라 소양, 인성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교육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부러 ‘학력’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미로 교육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교육만큼 계층을 깰 수 있는 사다리가 없었고, 어쨌든 그게 희망이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사다리는커녕 계층 재생산의 도구가 돼 버렸죠.

-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일도 안타깝고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한 ‘수월성 교육’의 성과인, 소위 말하는 학력 또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사PISA 점수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 2위였는데 계속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해력이 거의 바닥이라고 하던데요.

- 그렇죠. 그 지점입니다.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기본이. 그러니까 교육의 기본인 사고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건 사고력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 문해력은 언어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인데 언어 능력은 사고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독서력이 떨어집니다. 대학 입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걸 학생들 사고력을 높이고,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스킬을 기르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기 위한, 소위 말하는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스킬 말입니다. 소위 스카이라이프 이런 일류 대학을 가면 신분, 미래가 보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만 통과하면 되니까 모든 것을 그 시험 중심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이 중요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로 바뀌기는 했지만 객관식 시험만 보게 되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 교육력 빠르게 저하, 전남이 가장 심각

하여튼 대입이 문제인 거는 알겠는데, 저희 때도 사지선다 아니었나요? 지금은 오히려 오지선다인데?

- 그랬죠.

근데 왜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어디든 대학만 가면 직장이 보장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랬군요. 저희 때 하고는 진학을 자체가 다르죠, 지금은.

- 당시에 서울대 정도 가는 학생이 지금은 인서울 정도

한다고 봐야죠.

그렇더라고요.

- 그러니까 책을 안 읽죠. 책을 초등학교 때 읽다가 점점 안 읽게 돼요.

읽을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 독서를 해도 지금은 교과 과정에 연계한 독서만 합니다, 시험 문제에 관련된 독서만. 단편적인 독서만 이루어지고 스토리 독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고전 같은 거는 읽지를 않죠, 우리나라처럼 고전을 안 읽은 데가 없어요.

『데미안』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 그러니까 재미로 초등학교 때는 읽었어도 점점 그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독서력이 약화되면서 사고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문해력까지 저하시키고 결국 학문 역량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큰일이네요.

-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이 교육 격차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진학이나 고시를 통해 계층상승을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결정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노력하고 성취하는 학생도 없는 것 아니지만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학생들 독서할 여유도 없고, 할 이유도 못 느껴

실제로 대학들도 특정 지역 고등학교에는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주는 거 같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은 참 불리하네요.

- 전남이 최하입니다. 지금 학력이 최하예요. 수능 꼴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심각한 문제네요.

- 전남이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남 광주가 최하위입니다. 광주는 아마 광역시 중에서 꼴찌일 것이고, 전남은 확실하게 꼴찌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보다도 못합니까?

- 이번에 꼴찌 했어요. 제가 교육감을 맡은 후 처음 치러진, 이번 수능 결과는 내년에 나와요, 아직 공개를 안 하는데 꼴찌일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역 대학이야기도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이 희망이 없나요? 여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가서 출세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 있죠. 지금도. 결국 대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불안해하죠. 대학을 갔어도 진로가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근데 전남대는 부산대나 경북대보다는 위기가 덜하다고 그러거든요.

- 그렇다면 어쨌든 전남, 광주 등에서 대학 나름대로는 노력과 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전남은 인문 분야나 이런 쪽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과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전남이 그렇게 교육적으로 추락을 했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원인은 전반적으로 전남이 갖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어렵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 전남 지역소멸 지수 전국 최고에는 전국 최저의 교육력도 영향 커

- 경제적인 환경, 지역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요즘 지역 소멸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남을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교육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은 지역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가 됐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이 있는데, 16개 군이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높지요.

- 예, 전남이 심각하죠. 그런데 전남의 출생률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전남이 10이거든요. 1을 유지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1.2가 되는데, 거기는 광역지자체로서는 예외라고 봐야 할 테니까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1위입니다. 서울이 0.6이 안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0.78인 거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은 데가 전남 영광인데, 1.7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출생률은 높는데 왜 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냐? 그것은 당연하지만 도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일부는 광주로 가는 거죠. 상황이 급박하니까 며칠 전부터 MBC, KBS 등 언론들이 전남의 인구 감소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떠납니다.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년이 많이 떠나는데 그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전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데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남은 어쨌든 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민선 4기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아예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우리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할 방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방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우선은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당장 진학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으니까 학생수가 적은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학생들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교육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이익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이 학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들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타 지역에 소위 명문학교 아이들이 와서 좋은 일자를 다 차지해버린다?

-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진로진학센터를 학교에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권역별로 묶어서 시내에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센터에 오면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질 높은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다, 아마 모든 교육감님이 다 자기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하고 싶어 할 텐데, 어떤 게 질 높은 교육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울까요?

- 괜찮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이나 도시에 비해서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너무 작은 학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점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강점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좋습니다. 대도시나 서울 강남 같은 곳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는 목적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잘만 갖추면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을 할 거냐? 저는 다른 도시보다 디지털 기반교육, AI 교육을 더 먼저 도입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코로나가 그 기회를 줬어요, 우리한테. 코로나가 퍼지니까 혼자 공부들을 했어요.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체험을 했죠. 선생님들도 그런 걸 경험하셨죠. 저는 코로나가 끝나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사라지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과밀화된 도시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 특성화교육, AI교육 선진적 도입으로 교육 격차 잡겠다

실제로 속된 표현으로 ‘강남서 공부 못하면 최악’이라고들 합니다. 더 나쁘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가 많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건 저도 체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전남의 교육격차문제가 지역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한, 시군이나 도하고 협력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선생님입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선생님이 한 분이, 하나의 수업안을 갖고 20여 명의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비대면 AI수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 기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전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외부 콘텐츠를 받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교사가 가르치는 일, 즉 ‘티칭’이 아니라 ‘코칭’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걸 교사가 못

하면 학생들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최초로 교사연수원에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교사들이 먼저 코칭법을 연수 받고, 연수 받으신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도 효과가 있겠네요.

-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받다가 AI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 안내를 받아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이 AI시스템에서는 본인이 공부한 것이 다 기록으로 나오고 평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평가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선생님이 채점해야 하고 문제 내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이것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교실 안에 들어가게 하자, 전남에서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짜 놓고 있습니다.

## 전남 교사 역할, 티칭teaching 더하기 코칭coaching으로 확대

연장선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벌 기반 능력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소위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 초중등교육은 대학 가는 데에 올인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대열을 쫓아가기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학벌 위주의 사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 위주의 사회인 것이 사실이지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은 여전히 학벌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라도 현시점에서 이걸 등한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보편 교육 중심, 그래서 수월성 교

육보다는 보편 교육 중심으로 혁신 교육, 진보교육이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조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상담센터 같은 걸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학원 같이 학생을 지원해 주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심화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이 나오면 그것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남을 떠나지 않더라도, 꼭 서울에 가서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넓혀가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진보 교육 쪽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편중을 지적하고 이를 폄하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용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서 원하는 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벌이 필요 없는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에 맞도록 기르고, 또 진로 쪽으로 유도를 하는 등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얽혀 있는 큰 문제라서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을까요?

- 우리도 보편적 복지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쟁점이 됐는데, 그 전에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진전이 있었죠. 저는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성공시킨 사례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된 95년에 급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서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내는 학생들은 점심 때 굶어야 되는 식아동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 무상급식 전국 최초 도입으로 진보정책 기여한 자부심 있어

비참하죠.

- 그때 목포에서 조사해 보니까 결식아동이 5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당시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산법상으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통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목포시였습니다.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목포시에서도 예산 문제를 들어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계속 싸우고 사례도 들고 법률 문제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아마 대전 유성구하고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결식아동을 돕는 무상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나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무상급식을 통해 제가 우리나라 진보를 상당히 앞당기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무상급식논쟁이 있었고 오세

훈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두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이 과정들을 쫓 봐왔습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력이 떨어지고 지역 유출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소득, 학생교육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교육감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20만원씩 초중고 학생들에게 1년에 240만원을 주게 되면 여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돈이죠.

- 큰돈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보면.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게 되면 교육력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념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려면 의회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기가 좀

어려워요, 전라남도의 도민들, 학부모들을 만나면 기본소득 개념이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받고 토론도 했어요. ‘기본소득’ 명칭을 ‘수당’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구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세까지 월 10만원씩이나 8세까지 주거든요, 그걸 연장해서 수당 개념으로 20만원씩 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또 농민회나 이런 쪽에서는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등 수당 개념이 보편화돼 있으니 차라리 교육수당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명칭은 그렇게 하자, 어쨌든 간에 근본은 기본소득이지만 명칭은 그렇게 하자고 양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자면 수당하고 기본소득은 다른 것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어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 교육기본소득, 교육 격차 해소에 결정적 역할 하리라 기대

-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제인지, 그제인지 언론에서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때문이라는 기사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돌봄을 교육당국에서 방치해가지고 학원으로 몰았기 때문이라는 비판 기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사교육비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데가 전남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러면 전남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우리 공교육 기능이 좀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교육비가 도에 따라서 3배 차이가 나요.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기가 돼 버렸는데, 공부도.

- 그렇죠. 전남에는 들어갈.

돈이 없다.

- 전남에서는 사교육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수업을 시로 본인이 하더라도 다 돈 줘서 사서 봐야 하고, 학원 다니고 싶어도 학원이 없거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외에도 전남에는 5.7%의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은 고맙게도 다산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자녀 한 명에 월 20만원씩, 두 명이니 월 4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1년이면 48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조손 가정들이 많아요, 가정이 깨져서. 이런 걸 생각하면 전남의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본소득 개념으로 고성군 등에서 월 5만원, 7만원씩 전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크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교육기본소득,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층에 특히 도움될 것

경남 고성 말씀하시는 거죠?

- 네. 우리는 지역 소멸의 문제, 교육 격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그리고 전남은 특히 교육문제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그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을까요?

- 없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에 주는 거니까, 이것은 선별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소득관련 이야기이기는 한데,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올해 열리는데, 전남 목포하고 서울에서 분산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하시게 된 이유, 준비 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칭은 교육수당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래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6개 소멸예상 군, 또 6개 시의 6학급 이하의 작은 학교들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시작만 하게 되면 각 시군의 역량에 따라서 매칭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주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망했던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이뤘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전남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의 기본소득에서 여러 선구적인 모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의 제목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우리의 사례도 이야기하고 범세계적인, 혹은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보완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 정약용 선생 ‘교육 실천적 삶’, 김대중 대통령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교육철학적 소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철학 혹은 비전에 대한 본인의 평소 소신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교사를 하고 전남에서 교육 행정을 하는 교육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은 저는 정약용 선생님한테 배우면 된다고 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18년 동안 강진에 계시면서 600여권의 책을 저술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교육 방식 속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교육의 좌표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몸소 실천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교육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도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

해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의 철학 중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서.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교육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은 서생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기로 실천하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으로써 교육현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학생들의 사고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기본을 너무 도외시하고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무작정 도입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을 해봅니다. 한때는 우리 교육의 모든 방향이 핀란드식 모델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덴마크 열풍이, 지금은 독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의 기본이 그런 것들을 추종해 나가는 방식이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도르프니 뭐 이런 거 말씀이시지요?

-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교육계,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 상황과 민족적인 도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있고 DNA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제1과제로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인성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성을 실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먼저 하고, 미래교육, 지식교육이 뒤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 진보, 보수의 입장들을 떠나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것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면서 소년 김대중 공부방이 있길래 거기를 갔었습니다.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같으시니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이 교육감 첫 임기시죠?

- 처음이죠.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려 한 10년은 하셔야 되는데...

- 글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으로 뽑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마는 민심이라는 무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한 시간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제가 인터뷰가 아니고 좀 살아온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정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비슷하죠. 80년대 학번들이.

- 좀 재미있었습니다. 대화하듯 해서.

박승희 열사 선생님이셨다는 거를 알고 놀랐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니 젊은 게 아니라 어린 나이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잘 아는 선배와 편한 대화를 나눈 기분입니다.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